

제1회 SNU 논리적 토론과정

● ● ●
양 현 모

(주)리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도 몇 차례씩 곳곳에서 ‘대학생 토론대회’가 열린다. 대회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고, 단일 대회로 가장 오래된 대학생 토론대회는 이제 9년을 넘어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중고등학교 조별 수업에서부터 전문가들이 나와 논쟁을 벌이는 100분 토론, 그리고 전 국민이 주목하는 대선토론까지 대한민국은 토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곳곳에서 ‘토론을 통한 소통’을 주장하지만 아직 토론에 대해서 또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교육은 부족한 상태이다. 토론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토론을 해야 할까?

토론은 무엇인가?

토론은 주제나 논거와 상관없이 단순히 ‘자신이 옳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말다툼’과는 다르다. 또 함께 모여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하여 타협해 나가는 ‘토의’와도 다르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라는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또는 청중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토론의 역사?

토론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책을 남긴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인 ‘레토릭’에서 토론의 종류에 대해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정책(policy), 가치(value), 사실(fact) 토론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토론을 잘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가르쳤다.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정치의 장에서 정책(policy)토론을 했고,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고라에 모여 가치(value)토론을 했다. 또한 법정에서는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해 검증하고, 옳고 그름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fact)에 관한 토론을 했다.

토론은 왜 하는가?

고대 아테네에서 토론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범죄나 시민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법정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뜨듯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변화’ 없이 현재도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발명되고 사람들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토론하여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 인지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 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들이 주는 ‘가치’에 대해 ‘평가’ 하여 앞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장려할지 결정해야 한다. 즉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 변화에 대해 사실을 판단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정책(대응)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변화를 모두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에서 주최한 제1회 SNU 논리적 토론과정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토론의 의미와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과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른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었던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준 흔치 않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1회 SNU 논리적 토론 과정

일시: 2014년 1월 13일(월)~2014년 1월 17일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참여자: 학부생 20명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부생 의사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SNU 논리적 토론과정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및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 중에 하나인 토론에 대한 이해부터 실습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토론 이론 강의와 실습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토론 능력의 직접적인 향상을 위해 5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론 강의로는 ‘토론 대회 수상자에게 듣는 토론의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 ‘토론 대회 심사위원에게 듣는 토론 잘하는 비결’ 강연이 진행되었다. 토론 실습은 서울대 말하기 동아리 ‘다담’ 학생이 토론 실습 코치로 참여하여 조별 토론 실습이 3일 동안 총 7시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마지막날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토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론 배틀을 열었다. ‘사후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해야 한다’ 라는 토론 논제를 가지고 실제 토론대회와 같이 찬반토론이 한 시간 동안 뜨겁게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토론 스킬을 학습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평가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고 대답했다.

